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말씀: 마22:23-33

도입

침례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경공부, 성경세미나, 성경학교, 딤후2:15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딤후4:15)

성경을 읽고 공부한 것이 오히려 영적 유익을 주지 못한다.

성경 공부가 오히려 저주가 된다. 내 주변에서도 지식을 탐구하다가 진창에 빠진다.

내 경험, 성경 번역 = 유익?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개인과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 나도 무언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골프채와 골프 성적은 다를 수 있다. ★★★

성경을 대하는 이유

성경 말씀의 유익: 딤후3:16-17

교리: 기독교의 근본 원리, 틀, 가르침, 교훈 등, 조직 신학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요4:22-24)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영생 (요17:3), 아는 것이 핵심이다.

아는 것 혹은 지식은 무엇인가?

지식: 넓은 뜻으로는 사물에 관해 단편적으로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

엄밀한 뜻, 무언가를 자기 지배하에 두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지(知)>는 사물의 양상을 <화살>처럼

단적으로 <입>으로 말해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식(識)>은 <식별>이라는 속어로 사용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것을 그 이외의 다른 것에서 판명해서 구별하여 구분하는 것

'안다'(히브리어 야다)는 구약에 941회, 사물이나 사실 그리고 인격체를 안다는 의미로 쓰임.

창3:5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열리고 선과 악을 알리라. 상대 윤리

창4:1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때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 경우 이브라는 인격체의 모든 것을 안 것이다. 즉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성도의 목표: 영생,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영생은 인격체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벧후1:3-4)

아니까 믿음이 생긴다. 많이 알수록 믿음이 커진다. 단순한 지식 자랑이 아니다.

아브라함; 75세에 하란을 떠남, 창15장 믿음으로 의롭게 됨, 86세에 이스마엘, 99세에 이삭의 약속, 100세에 이삭, 그 이후에 이삭을 바침. 많이 알면서 더 확실히 믿고 신뢰하게 됨.

무엇을 많이 알았을까? 성경 기록이 없었음, 교리도 모름,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의 임재

나, 키 170cm, 안경, 공학박사, 성경 번역자, 아내 세 딸, 다 아는 것인데 실제로 나를 아는 것일까?

내 아내가 나를 가장 많이 안다. 내가 내 아내를 가장 많이 안다. 하나님도 이런 의미의 알

아는 것의 타락

종교가 되면서 인격체를 아는 것이 글자를 아는 것으로 전락함

형식, 성경 기록, 체계, 외형적 경건함 ▶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점점 더 감소함.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므로 망하는도다(호4:6-7).

율법이 없었는가? 주님의 말씀이 없었는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것)에게 오셨으나 심지어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음(요1:12).

성경기록을 알지 못하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 기득권 세력, 종교 정치 등 모든 분야

마22:23-28 설명, 29절 설명

구약 시대에도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이 있다(단12:2, 12:3, 13; 욥19:25-27; 사26:19)
31절(출3:6):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순례 여정을 거쳤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이라고 여기는 이들은 성경기록들과 하나님의 권능을 모른다(29).

이들은 죽지 않고 살아 있다

예수님 출생 당시의 성경 기록관들, 성경 박사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마2:5).

글자는 알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다.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요9:39-41)

본다고 해서 문제다. 너희는 글자만 본다. 내가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요6:63).

글자가 사람을 죽이는 지경이 됨

우리는 어떤가? ★★★

설교/성경공부의 핵심: 영과 생명을 추구하는 것

율법의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니라(고후3:6)

목사의 설교, 성경 공부, 일주일 동안의 성경 읽기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나?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팅치 같지 아니하나?(렘23:29)
행2장: 베드로의 말씀, 마음에 비수같이 쏘이지 않았던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

이사야서 6장의 대언자와 같이 “내가 죽은 자가 되었도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도 모른다(29): 머리로만 알지 파워가 없다.

능력 받기를 원하는가? 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

죄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한다. 순식간에 온 우주를 무에서 유로 만드는 파워

우주를 회전시킬 수 있는 권능, 우주를 순식간에 해체할 수 있는 권능(벧후3:10)

부활의 파워(엡1:18-23), 휴거의 파워

이것이 교회의 강력이요, 권능이다.

성경 지식이 바로 박힌 사람의 특징

1.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거룩함의 인식
2. 죄 문제의 심각성, 회개의 필요성
3. 그리스도의 은혜
4. 성경에 대한 절대 확신: 삶의 변화: 교만이 없어진다.
알던 것을 바꾸려고 한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바꾼다. ★★★
5. 하나님의 두려움
6. 성도들과 모임을 중요하게 여긴다.
7. 단순한 삶: TV

성경 지식의 결과

개인의 영적 부흥,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물질의 필요, 직장 문제

교회의 부흥과 성장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엡3:20).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라(빌3:10).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추구하는 삶,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을 실행하는 삶

문자로 주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